

프랑크푸르트국민의회

프랑크푸르트국민의회 (독일어: Frankfurter Nationalversammlung)는 1848년 독일혁명으로 설치된 입헌기관으로서, 1848년 5월 18일부터 1849년 5월 31일까지 프랑크푸르트의 파울교회에서 열렸다. 빈체제로 성립된 독일연방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추구하던 민족국가와는 거리가 멀었고, 3월혁명이 일어나 통일국가형성운동이 힘을 얻게 된다. 독일연방의 연방의회는 1848년 3월말과 4월초 사이에 연방투표법을 결의하여 독일주민들이 국민의회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 최초로 자유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다.

국민의회는 프랑크푸르트헌법을 1849년 3월 28일 가결했다. 이 헌법은 1848년 3월혁명 전 야기에 1815년 이후의 반동적인 메테르니히 체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자유주의와 국민국가주의 운동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프랑크푸르트국민의회와 그 결과물인 프랑크푸르트헌법은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그에게 추대된 독일 황제의 자리를 거부하면서 좌절되었다.